

사회문화적 압력과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성인여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 윤* · 황 선 진⁺

광주보건대학 피부미용과 조교수*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Effects of Socio-cultural Pressure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n the Behavior of Women for Appearance Management

Yun Kim* · Sun-Jin Hwa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kin & Beauty, Gwangju Health Colleg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 Kyun Kwan University⁺

(투고일: 2008. 8. 6, 심사(수정)일: 2008. 8. 6, 게재확정일: 2008. 11. 20)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verify how internalization of ideal beauty stereotype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by sociocultural pressure factors had an influence on body satisfaction and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body 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o achieve the purposes, a survey was conducted to 419 female adults, whose ages were from 18 to 29. Data were analyzed by structure equation modeling of Amos 4.0 and SPSS 10.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ocultural pressur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ternalization of ideal beauty stereotype, body 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variables. Second, sociocultural pressure factors such as, family, friends, media had a positive effect on objectification that female adults saw themselves from the viewpoint of a watcher; when females more highly recognized sociocultural pressure like family, friends and media, their satisfaction with body became lower. Third, when females had high tendency of objectification and high body satisfaction, they affirmatively managed their appearance.

Key words: sociocultural pressure(사회문화적 압력),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대상화된 신체 의식), body satisfaction(신체 만족도),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외모 관리 행동)

I. 서론

외모가 개인의 사회경쟁력이 됨에 따라 현재 우리 사회의 가치관은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때 개인의 외모관리에 영향력을 주는 것은 대중매체, 가족 그리고 친구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압력이다.¹⁾ 이러한 사회문화적 압력 요인들은 사람들에게 외모에 대한 사회가치를 확산시키고 이상적 외모규범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신체이미지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여러 사회문화적 압력 요인에 의해 전달된 이상적 외모규범은 외모 정도를 비교·판단하는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자신의 신체외모를 객관화 시키는데 이러한 사회현상은 대상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²⁾ 대상화 이론은 아름다운 여성을 이상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대중에게 외모중시 가치관을 고착화하며 자신을 스스로 대상화하여 사회적 이상미와 비교함으로써 신체불만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노력을 통해 아름다운 외모를 획득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체중조절, 운동과 같은 다양한 외모관리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³⁾

이와 같이 신체외모의 외모관리행동이 유발되는 원인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⁴⁾⁵⁾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그 사회의 이상화된 신체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외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수용하게 되면 자아개념과 신체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갖게 된다고 한다. 또한 개인이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가치와 미적 기준을 내면화하는 정도에 따라 외모에 대한 자기 감시와 불만족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극단적인 다이어트, 체중조절, 미용제품 구매 등과 같은 외모를 향상하고자 하는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⁶⁾⁷⁾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자아 관련 개인적 특성이나 매체와 같은 사회화기제 등의 사회적 영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의 외모관리에 대한 사회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 개인적 특성 변수와 신체만족도 등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하는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영향력인 사회문화적 압력과 개인적 변수인 내면화 및 대상화가 개인의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주어 외모관리행동에 이르게 되는 경로와 과정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회적·개인적 연구변인들의 관계와 경로를 규명하는 분석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신체 외모에 근거하여 개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우리 사회의 외모중시 풍조가 성인 여성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문화적 압력의 개념 및 특성

사회문화적 압력 요인이란 외모에 대한 이상적 기준을 형성하고 이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유발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주로 가족, 친구, 대중매체 등이 속한다.⁸⁾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압력 요인은 이상적인 외모기준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자신의 가치기준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스스로 신체와 외모에 대한 어떤 기대를 형성하게 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든다.⁹⁾ 즉, 사회문화적 압력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 비현실적으로 이상화된 외모 기준을 보편적인 것으로 여기고 날씬하고 아름다운 신체외모에 대한 중요성을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함께 다양한 외모관리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다.¹⁰⁾

사회문화적 압력 요인 중에서 가장 일차적인 사회화를 담당하는 가족구성원들의 신체와 외모 관련 놀림은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 신체불만족과 마른몸에 대한 사회문화적 내면화에 영향을 주며, 식이조절과 식이장애 행동까지도 유발한다.¹¹⁾¹²⁾ 김경원 외 3인¹³⁾은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여대생 집단의 경우에 가족들이 자신에게 더 마른 체형과 체중감량을 기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의 경우에도 가족들의 기대가 신체외모에 대한 신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친구나 동료 등의 주변 요인도 신체 이미지와 외모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Keery와 2인¹⁴⁾의 연구에서는 친구들의 놀림, 외모에 대한 지각 등과 같은 친구 요인이 직접적으로 신체불만족을 예측하며, 이상화된 외모에 대한 내면화 등의 조절변수에 의해 간접적으로 신체불만족이 형성되어 섭식 조절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희와 홍양자¹⁵⁾의 연구에서도 여고생들의 약 45%가 체중조절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친구와의 대화와 이성친구를 의식해서라고 응답해 친구들의 영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주변 친구들의 압력에 의해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해 평가하고, 주변의 평가에 의한 이상적 외모 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해 신체불만족을 해결하고자 외모관리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외모관리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중매체는 아름다움에 대한 고정관념화, 신체 외모의 규격화 및 마른 몸을 이상적 외모기준으로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외모를 갖도록 조장한다¹⁶⁾. 예로, 남성에 비해 TV 등의 매체 노출 정도가 큰 우리나라 여성들은 마른 신체를 가진 매체 이미지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으며¹⁷⁾¹⁸⁾, 이로 인해 자신의 체중과 신체사이즈에 대한 왜곡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⁹⁾ 이 외 많은 연구들이 비현실적인 미적 기준을 획득함으로써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매체 이미지와 신체외모에 대한 만족도와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족과 친구들의 놀림 또는 외모에 대한 지각, 사회적 이상미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도달 방법까지 전달하는 매체와 같은 사회문화적 압력들은 미에 대한 가치기준을 내면화시켜,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 여부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외모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동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대상화 이론

앞에서 언급한 사회문화적 압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 친구 그리고 대중매체와 같은 사회문화적

압력 요인은 사회적 미적기준을 토대로 자신의 신체 외모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내면화를 이루게 한다.²⁰⁾²¹⁾ 그리고 내면화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게 하고 날씬한 몸과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외모관리에 대한 당위성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외모관리를 추구하게 만든다.²²⁾²³⁾ 이처럼 여성들이 내면화한 이상미를 획득하기 위해 신체외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외모관리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사회적 현상은 대상화 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대상화 이론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사회적 환경 영향으로 여성들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객체(Object)'로 인식하는 대상화가 형성된다고 제안한다.²⁴⁾ 또한, 대상화를 통해 사회적 산물인 이상적 신체기준과 이상미와 자기 신체를 습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우울감, 수치, 불만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이상적 외모를 갖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관심을 쏟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⁵⁾ Morry와 Staska²⁶⁾의 연구에서도 사회문화적으로 파생된 결과물인 이상미에 대한 내면화와 대상화가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외모관리에 대한 조언과 시각이미지를 제공하는 잡지의 노출정도가 내면화를 매개변수로 하여 식이장애와 신체불만족을 예측한다고 밝혔다²⁷⁾²⁸⁾. 또한 대상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 신체에 대한 존중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화의 정도가 신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서로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²⁹⁾ 국내 연구에서도 여성들의 신체 존중감이 날씬함의 정도와 대상화된 신체의식의 하위 개념인 신체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⁰⁾ 그리고 이상적 매체 이미지로 인한 대상화는 식이장애와 신체수치감과 같은 정신적·육체적 안정 및 건강과 직결되어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Calozero³¹⁾의 연구도 매체가 보여주는 이상적 외모에 대한 내면화가 대상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대상화에 의해 간접적으로 내면화와 마른 몸을 추구하는 경향이 매개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이상미에 대한 내면화와 이로 인한 대상화가 개인의 외모관리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요약하면, 사람들이 객관적인 미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회적 이상미를 자신의 미적 가치로 내면화하게 되면, 자신의 신체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대상화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사람들이 사회적 이상미를 내면화함으로써 형성되는 대상화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함께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외모관리행동

일반적으로 외모관리행동은 화장, 운동, 피부 관리 및 체중조절과 같은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미용성형과 같은 적극적인 외모관리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다. 최근 우리 사회는 매체 등을 통해 이상적 신체를 제시하여 불일치로 인한 신체불만족을 의도적으로 양산하고 동시에 아름다운 외모는 노력을 통해 획득 가능하다는 신념을 전달하는 외모관리 산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³²⁾³³⁾ 특히 성장기부터 자신을 대상화 하도록 습관화된 여성들은 이러한 외모관리 산업의 상업주의 전략에 의해 이상적 신체를 자신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 자아의 모습으로 내면화하고, 외모 개선을 위해 외모관리 행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 박은아³⁴⁾와 정진애³⁵⁾는 매체에 나타난 이상적 미의 기준과의 신체이미지 비교에 의한 자기불만족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의류 및 화장품의 구매 의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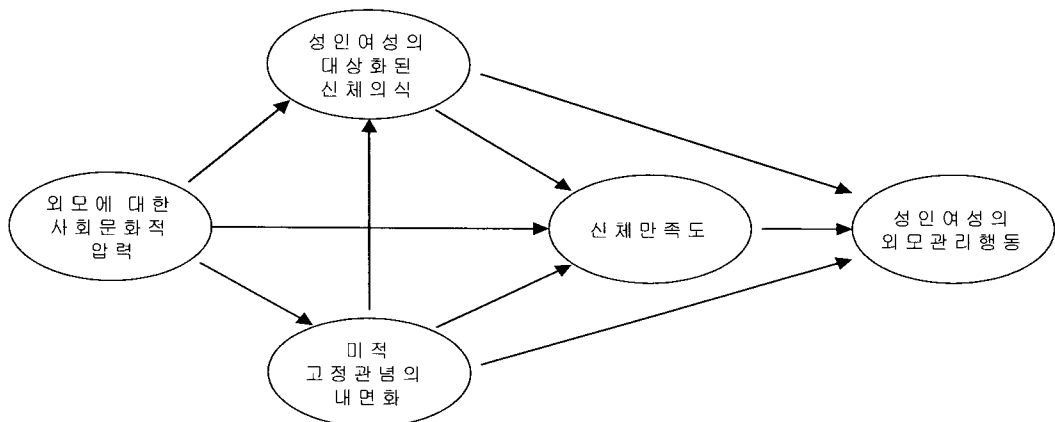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들 연구는 구매를 유발하는 광고매체의 상업적 의도가 실질적으로 유효할 뿐 아니라, 매체 이미지와의 현격한 차이에 의해 발생된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성과 관련된 외모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문화적 환경요인,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와 대상화가 여성의 신체에 대한 감정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주어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신체외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외모관리행동에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여러 사회문화적 압력 요인이 사회문화적으로 이상화된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면화와 신체외모에 끊임없는 관심과 통제를 하고자 하는 대상화 변인에 의해 신체만족도 그리고 외모관리행동에 이르는 경로와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그림 1).



<그림 1> 사회문화적 압력과 성인여성의 외모관리행동 간의 모형

2. 연구가설

가설 1. 사회문화적 압력은 성인여성들의 대상화된 신체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문화적 압력은 성인여성들의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사회문화적 압력은 성인여성들의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는 성인여성들의 대상화된 신체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는 성인여성들의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대상화된 신체 의식은 성인여성들의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대상화된 신체 의식은 성인여성들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신체만족도는 성인여성들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측정도구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본 연구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은 개인의 외모와 체중에 대한 주변의 압력에 대한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³⁶⁾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 영향력 3개 문항, 친구 영향력 5개 문항과 매체 영향력 3개 문항으로 구성된 Stice³⁷⁾의 사회문화적 압력 척도(Perceived Sociocultural Pressure Scale)의 11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란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여겨지고 있는 신체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³⁸⁾ 본 연구에서는 9개 문항으로 구성된 Stice³⁹⁾의 이상적 신체에 대한 고정관념 척도(Ideal Body Stereotype Scale)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대상화된 신체 의식

대상화란 제 3자의 시선으로 자신의 신체 자아를 지각하고 평가함으로써 신체외모에 대해 습관적으로 감시와 평가 및 통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⁰⁾ 본 연구에서는 Mckinley와 Hyde⁴¹⁾의 대상화된 신체 의식 척도(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BS) 24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신체만족도

신체만족도란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만족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신체 각 부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만족 정도를 신체만족도로 정의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Cash⁴²⁾가 개발한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MBSRQ)의 하위 척도인 신체만족도(Body Area Satisfaction Scale: Bass)의 9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5)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행동이란 자신의 신체 외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외모를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행해지는 행동으로 정의 한다⁴³⁾.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김선희⁴⁴⁾와 정명선⁴⁵⁾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외모관리행동 7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하였다.

4. 연구대상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서울, 대전, 전주,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29세 사이의 성인 여성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지역적 편증을 최소화하였다. 총 500부를 배부하여 465 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41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0.0 for Window와 AMOS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측정항목의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으며, 이론 변수들 간의 경로 및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먼저, 연구에 사용된 각 요인의 단일 차원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측정하였다. 이어서 Cronbach's α 검증을 실시하여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이론변수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따르면, 신뢰도 계수의 경우에는 0.6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측정되었다.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표본수의 영향을 받기 쉬운 χ^2 값이 크고 유의도가 작았다. 그러나 χ^2 외의 적합도 지수인 GFI, AGFI, NNFI, CFI의 경우, 대상화 변수의 NFI의 값 .880을 제외하고는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 값에 있어서도 0.05 또는 0.08이하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적합도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인다.

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의 검증

1) 연구모형 검증

초기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 최적 모형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적합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사용하여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차항간의 상관을 허용하여 연구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수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먼저, 표본수의 영향을 받기 쉬운 χ^2 의 경우, $\chi^2=87.637$ (d.f.=41, p=.000)로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χ^2 값은 표본 수에 민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오므로 적합도를 판단하는 다른 지수들을 포함하여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적합도 지수인 GFI, AGFI, CFI, NNFI 값의 경우 모두 .90 이상의 값을 나타냈으며, RMSEA값에 있어서도 0.08 이하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 기준을 충족하였다.

2) 연구가설의 검증

사회문화적 압력, 대상화 및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가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모형에 제시된 연구가설을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검증한 경로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와 그림에 제시하였다(<표 3> <그림 2>). 모형에 제시된 연구변인간의 경로는 t값이 모두 2.0을 넘는 값을 보이고 있다.

<표 1>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연구변수	χ^2	P	DF	GFI	AGFI	NNFI	CFI	RMSEA	신뢰도
사회문화적 압력	114.533	.000	34	.951	.904	.953	.971	.075	.88
대상화된 신체외식	269.143	.000	139	.937	.914	.880	.903	.047	.68
미적고정관념의 내면화	36.660	.013	20	.981	.958	.981	.990	.045	.86
신체만족도	52.906	.000	22	.974	.948	.955	.971	.056	.79
외모관리 행동	24.688	.003	9	.983	.947	.926	.968	.065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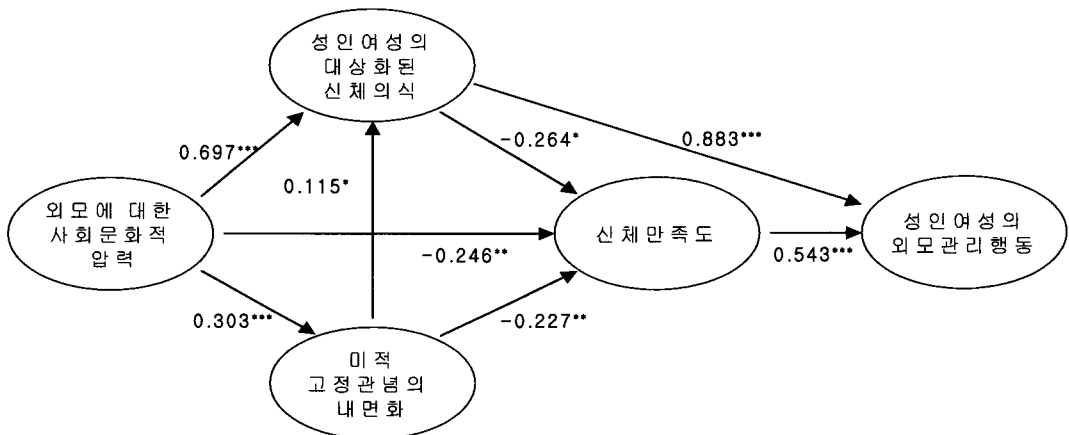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

모형	χ^2	P	DF	GFI	AGFI	NNFI	CFI	RMSEA
초기 연구모형	181.148	.000	46	.926	.871	.852	.899	.085
수정 연구모형	87.637	.000	41	.966	.936	.944	.965	.052

〈표 3〉 연구 모형에 관한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값
가설 1	사회문화적 압력 → 대상화	0.697***	0.047	10.622***
가설 2	사회문화적 압력 →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	0.303***	0.053	4.753***
가설 3	사회문화적 압력 → 신체만족도	-0.246*	0.078	-2.418*
가설 4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 → 대상화	0.115*	0.060	2.120*
가설 5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 → 신체만족도	-0.227**	0.078	-3.061**
가설 6	대상화 → 신체만족도	-0.264*	0.109	-2.281*
가설 7	대상화 → 외모관리행동	0.883***	0.144	6.939***
가설 8	신체만족도 → 외모관리행동	0.543***	0.133	4.882***

*** p < 0.001, ** p < 0.01, * p < 0.05



〈그림 2〉 사회문화적 압력과 외모관리행동 간의 구조관계 분석

가설 검증 결과를 나타낸 표와 그림을 보면, 8개의 유의한 경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설을 중심으로 유의미한 경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문화적 압력 → 여성의 대상화

사회문화적 압력이 여성의 대상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의 검증 결과, 사회문화적 압력이 여성들이 자신들의 신체를 객관화하는 대상화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값=10.622, p<.001).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사회문화적 사회가 요구하는 객관적인 신체기준에 따라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제 3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신체에 대한 감시·평가·통제하는 대상화가 형성된다는 Fredrickson과 Roberts⁴⁶⁾

의 연구와 일치한다.

② 사회문화적 압력 → 여성의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

가설 2의 검증 결과, 사회문화적 압력과 여성들의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에 영향력에 대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값=4.753, p<.001). 이처럼 사회문화적 압력이 클수록 여성들의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가 높아진다는 가설 2의 결과는 여성을 대상으로 매체 및 사회문화적 압력에 의해 이상미에 대한 사회가치가 내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매체의 사회적 압력에 대한 지각과 외모의 내면화를 연구한 홍금희⁴⁷⁾와 Stice와 Bearman⁴⁸⁾의 연구와 일치한다.

③ 사회문화적 압력 → 여성의 신체만족도

사회문화적 압력이 여성들의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t값 = -2.418, p < .05$ 로 나타나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문화적 압력을 많이 받을수록 여성들의 신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문화적 압력의 하나인 이상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매체 등의 영향을 높게 받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김재숙과 이미숙⁴⁹⁾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가설 1, 가설 2, 가설 3의 검증 결과는 여성들의 경우에 가족, 친구 그리고 매체와 같은 여러 사회화 기체에 의해 외모에 대한 이상적 기준을 형성·강화되고, 이러한 사회적 압력을 많이 지각할수록 사회의 미적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아지며, 더 나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투하는 대상화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 → 여성의 대상화

가설 4의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와 대상화의 영향력 관계에 관한 경로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값 = 2.120, p < .05$). 이는 외모에 대한 문화적 관념의 내면화가 여성 스스로를 대상화 시키고 있다는 고석주와 정진경⁵⁰⁾의 연구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사회화를 통해 형성된 외모에 대한 내면화가 대상화에 영향을 준다는 Calogero⁵¹⁾과 Murnen⁵²⁾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된다.

⑤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 → 여성의 신체만족도

가설 5의 검증 결과,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가 신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t값 = -3.061, p < .01$), 미적 고정관념에 대한 내면화 경향이 클수록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 할수록 여성들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신체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조선명과 고애란⁵³⁾의 연구와 일치한다.

⑥ 대상화 → 여성의 신체만족도

대상화 변수가 여성의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가설 6의 검증 결과 또한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값 = -2.281, p < .05$). 이는 신체를 감시·평가·통제하는 대상화 경향이 클수록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화와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부정적 감정이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밝힌 McConnell⁵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유의미한 검증결과를 보인 가설 4, 가설 5와 가설 6은 사회문화적 압력,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 및 대상화 변수 각각이 신체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사회화 기체들의 압력 정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개인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내면화의 정도 그리고 관찰자의 대상화된 시각으로 신체외모에 몰두하는 정도에 따라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⁵⁵⁾⁵⁶⁾와 일치한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압력,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 및 대상화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⑦ 대상화 → 여성의 외모관리행동

대상화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한 가설 7의 경우, 대상화가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화가 외모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t값 = 6.939, p < .001$). 이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조정·변형하려는 행위 이면에는 자신의 신체외모를 스스로 대상화하기 때문이라는 대상화 이론가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⁵⁷⁾ 따라서 자신을 신체를 기준으로 대상화하는 경향이 클수록 외모관리행동에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⑧ 신체만족도 → 여성의 외모관리행동

가설 8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신체만족도가 여성들의 외모관리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값 = 4.882, p < .001$). 이는 이상적 기준과의 불일치로 인

해 형성되는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외모관리행동을 유발한다는 박은아⁵⁸⁾와 정진애⁵⁹⁾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나, 여성의 경우, 신체만족도 여부에 상관 없이 외모관리행동에 적극적이라는 이부희 외 2인⁶⁰⁾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유행에 대해 높은 관심과 수용도를 보인다는 신수래와 류숙희⁶¹⁾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위의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사회문화적 압력, 대상화된 신체의식,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가 클수록 여성들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사회문화적 압력, 대상화된 신체의식,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가 여성의 신체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신체만족도와 대상화된 신체의식 경향이 높을수록 외모 관리에 대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체만족도와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러 사회문화적 압력 요인이 이상미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고정 관념화하고 스스로를 대상화함으로써 자신의 신체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외모관리행동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공분산 구조 분석을 이용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성인여성들의 경우 여러 사회화 기제들에 의해 미적 기준을 개인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내면화가 이루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내면화에 의해 스스로 대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체라는 것이 사회문화적·정치적 차원에 의한 사회적 구성물임을 전제로 하는 대상화 이론의 주장처럼 사회적 산물인 이상미를 자신의 미적 가치로 내면화하게 되면 자신의 신체를 관찰자의 대상화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외모관리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문화적 압력, 대상화된 신체의식, 내면화와 같은 경향이 높을수록 성인 여성들은 자기신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사회문화적 산물에 불과한 이상적인 아름다움

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여기고 관찰자라는 엄정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신체를 비교·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미와의 불일치는 자신의 신체외모에 대한 좌절감을 가져와 불만족과 같은 부정적 반응을 갖게 하는 등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신체만족도는 외모관리행동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더라도 더 나은 신체 이미지를 위해 외모관리행동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도록 사회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과의 연결 관계가 이상적 기준과의 자신의 신체와의 불일치 정도와 같은 다른 매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주요변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 중 하나는 대상화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에 있다. 대상화와 외모관리행동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신체의모에 몰두하도록 사회화된 여성들이 신체에 대한 습관적인 감시, 이로 인한 신체수치감 그리고 아름다워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여 다양한 외모 관리 행동을 하게 된다는 대상화 이론가들의 주장(Fredrickson & Roberts, 1997)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사회의 외모 중시 경향과 이상화된 아름다운 몸을 소유하기 위해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추구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설명 근거가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18~29세 사이의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다양한 연령, 성별, 개인차 변인에 따른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대상화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객관화된 신체의식,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 척도를 번역하여 이를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검증하여 사용하였다.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적합한 표준화된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Thompson J. K., Heinberg L. J., Altabe M. & Tantleff-Dunn S. (1999). *Exciting beauty: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of body image disturbance*.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xii, 396.
- 2) Fredrickson, B. L., & Roberts, T. A.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2), pp. 173-206.
- 3) McKinley N. M., & Hyde J. (1996). Attitude toward social comparison as function of self-esteem: idealized appearance and body image.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7(4), pp. 379-405.
- 4) Monro, F., & Huon, G. (2005). Media-portrayed idealized images, body shame, and appearance anx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38(1), pp. 85-90.
- 5) Saad, G. (2004). Applying evolutionary psychology in understanding the presentation of women in advertisements. *Psychology & Marketing*, 21(8), pp. 593-612.
- 6) 박은아 (2000). 광고모델과 소비자의 신체이미지 차이에 따른 광고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정진애 (2004). 광고모델 신체이미지 비교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8) Stice E. (1994). Review of the evidence for a socio-cultural model of bulimia nervosa and an exploration of the mechanism of ac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4(7), pp. 633-661.
- 9) Stice, E., & Bearman, S. K. (2001). Body-image and eating disturbances prospectively predict increases in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 girls: a growth curve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7(5), pp. 597-607.
- 10) Blowers L. C., Loxton N. J., Grady-Flessner M. G., Occhipinti S., & Dawe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cultural pressure to be thin and body dissatisfaction in preadolescent girls. *Eating Behaviors*, 4, pp. 229-44.
- 11) Keery, H., Boutelle, K., Berg, P., & Thompson, J. K. (2005). The impact of appearance-related teasing by family membe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7, pp. 120-127.
- 12) 유일영, 이정렬, 임지영, 김순애, 김영옥, 장성욱, 장효

- 순, 조갑출, 한금선, 함명수, 현명선 (1997). 학령기 미만아동의 신체상 관련 요인 분석. *간호학탐구* 6(2), pp. 91-121.
- 13) 김정원, 이미정, 김정희, 심영현 (1998). 여대생들의 체중조절 실태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영양학회지*, 3(1), pp. 21-33.
- 14) Keery, H., Berg, P., & Thompson, J. K. (2004). An evaluation of the tripartite influence model of body dissatisfaction and eating disturbance with adolescent girls. *Body Image*, 1, pp. 237-251.
- 15) 김연희, 홍양자 (1992). 여고생들의 체중조절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9(2), pp. 64-71.
- 16) 박은아 (2000). *앞의 책*.
- 17) 심정은, 고애란 (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pp. 1334-1345.
- 18) 조선일보 (2004.8.28). "대박! 길은 있다" 6인의 성공스토리.
- 19) 신효정 (2002). *현대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화장, 헤어스타일, 신체이미지, 성형수술, 의복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 McKinley N. M., & Hyde J. *op. cit*, pp. 379-405.
- 21) Stice, E., & Bearman, S. K. *op. cit*, pp. 597-607.
- 22) 김은주 (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이윤정 (2004). 신체 통제에 대한 신념이 외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국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7), pp. 974-982
- 24) Fredrickson, B. L., & Roberts, T. A. (1997). *op. cit*. pp. 173-206.
- 25) McKinley N. M., & Hyde J. *op. cit*, pp. 379-405.
- 26) Morry, M. M., & Staska, S. L. (2001). Magazine exposure: internalization, self-objectification, eating attitudes, and body satisfaction i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3(4), pp. 269-279.
- 27) McKinley, N. M. (1998). Gender differences in undergraduates' body esteem: the mediating effect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actual/ideal weight discrepancy.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 28) Noll, S., & Fredrickson, B. (1998). A mediational model linking self-objectification, body shame, and disordered eat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2, pp. 623-636.
- 29) McKinley N. M., & Hyde J. (1998). *op. cit*.
- 30) 박은아 (2003). 신체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 한국과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2(2), pp. 35-56.
- 31) Calogero, R. M. (2005). The role of self-objectification in the experience of women with eating disorders.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 32) 성영신 (1999). 광고에 나타난 신체가치관 연구. *광고*

- 연구, 43, pp. 29-55.
- 33) 임인숙 (2002). 한국사회의 몸 프로젝트 -미용성형 산업의 팽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3), pp. 183-204.
- 34) 박은아 (2002). 한·미 광고의 메시지 비교분석 -뷰티 제품 잡지광고를 대상으로. *광고연구*, 56, pp. 29-51.
- 35) 정진애 (2004). *앞의 책*.
- 36) Stice, E. (2001). A prospective test of the dual-pathway model of bulimic pathology: mediating effects of dieting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1), pp. 124-135.
- 37) Stice, E. *op. cit.*, pp. 124-135.
- 38) Stice, E. *op. cit.*, pp. 124-135.
- 39) Stice, E. *op. cit.*, pp. 124-135.
- 40) McKinley N. M. & Hyde J. *op. cit.*, pp. 379-405
- 41) McKinley N. M. & Hyde J. *op. cit.*, pp. 379-405
- 42) Cash, T. F. (199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and software.
- 43) Oh, K. Y. (1999). *Body image and appearance management among older married dyads: factors influencing body image in the aging process*. Ph. D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 44) 김선희 (2003).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와 외모 관리행동에 대한 연구-20대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5), pp. 99-108.
- 45) 정명선 (2003). 성인 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3(3), pp. 165-179.
- 46) Fredrickson, B. L. & Roberts, T. A. (1997). *op. cit.*, pp. 173-206.
- 47) 홍금희 (2006).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가 신체이미지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1), pp. 48-54.
- 48) Stice, E., & Bearman, S. K. *op. cit.*, pp. 597-607.
- 49) 김재숙, 이미숙 (2001).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5), pp. 957-968.
- 50) 고석주, 정진경 (1992). 외모와 억압-문화적 관념의 내면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학*, 8, pp. 33-75.
- 51) Calogero, R. M. *op. cit.*
- 52) Murnen, S. K. *op. cit.*, pp. 427-437.
- 53) 조선명, 고애란 (2001).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 여학생의 연령 집단별 차이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7), pp. 1227-1238.
- 54) McConnell, C. A. (2000). *An object to herself: the relationship between girls and their bodie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55) 박은아 (2003). *앞의 책*, pp. 35-56.
- 56) Morry, M. M. & Staska, S. L. *op. cit.*, pp. 269-279.
- 57) Fredrickson, B. L. & Roberts, T. A. *op. cit.*, pp. 173-206.
- 58) 박은아 (2000). *앞의 책*.
- 59) 정진애 (2004). *앞의 책*.
- 60) 이부희, 고애란, 김양진 (1996). 남녀 중·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5), pp. 131-144.
- 61) 신수래, 류숙희 (2005).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패션 트렌드 수용도. *복식문화연구*, 13(2), pp. 280-288.